

# 뉴스 기사 속 노인의 특성 및 기사의 논조가 노인 태도, 정서, 그리고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와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통제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오현정 차 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조교수

김정환 차 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조교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노년층과 청장년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에게 대한 타 세대의 태도, 정서, 그리고 고령친화정책 태도 및 지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여 뉴스 기사의 논조, 그 안에 등장하는 노인의 특성, 그리고 해당 특성에 대해 응답자가 지각하는 통제성의 정도가 노인에게 대한 태도와 정서적 반응 그리고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 및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뉴스 기사를 읽은 후 나타날 수 있는 공감과 연민이라는 두 가지 정서의 상이한 메커니즘과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노인에게 대한 기사의 논조(2: 긍정 vs. 부정)와 기사 속에 드러난 노인의 특성(3: 성격 vs. 능력 vs. 외모)을 조작하여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사의 논조에 따라 응답자의 노인 태도, 연민, 공감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졌으며, 이는 기사 속 노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특성에 대해 응답자가 지각한 통제성은 기사의 논조와 함께 노인에게 대한 공감 및 연민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노인에게 대한 태도와 공감만이, 지지의도에는 공감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고령친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뉴스 기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KEY WORDS** 노인 • 뉴스 기사 • 공감 • 연민 • 고령친화정책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8021538).

\*\* jhkim@cha.ac.kr, 교신저자

##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가속화로 인해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약 37.0%에 달해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019). 한편, 세대 간의 갈등 및 고령자에 대한 타 세대의 차별 인식 등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 중 상당수가 노인과 대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인과 청년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았으며, 노인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전통적으로 동양권 국가들은 서양 국가들보다 고령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의식이 높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실태를 살펴보면 오히려 동양권 국가들의 노인차별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North & Fiske, 2015). 이는 동양권 국가들의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사회 구조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North & Fiske, 2015). 또한 유교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유교주의적 시각에서 경로사상과 노인우대를 요구하는 고령인구와 자본주의적 효용의 관점에서 고령인구를 바라보는 청년층 간의 시각 차이가 다양한 갈등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김왕배, 2010). 특히 경제적 가치와 노동력으로써의 젊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고령자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고령 차별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지은정, 2017).

피스케와 동료들(Fiske, Cuddy, & Glick, 2007)이 제안한 고정관념 구성모델(stereotype content model)은 노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노인 집단이 보유한 성격(warmth)적 특성과 능력(competence)적 특성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노인 집단은 일반적으로 타 세대로부터 성격적으로는 선하지만 능력적으로는 부족한 집단으로 평가되며, 노인의 성격과 능력에 대한 복합적 평가는 노인에 대한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차별로 이어진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차별의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종종 모순된 행동으로 발현된다. 예를 들면, 노인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만 노인 중심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거부하는 외면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사회적으로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으로 노인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중들이 갖는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정서와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뉴스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노인의 특성과 그에 대한 기사의 논조가 복합적으로 노인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와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기사 속 상황에 대해 수용자가 지각하는 통제성이 그 영향을 조절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노인이 보유한 성격, 능력,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지각하는 통제성의 수준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 지각하는 통제성의 수준이 기사의 논조가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및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두 가지의 유사하지만 다른 정서 반응인 연민과 공감은 노인에 대한 기사의 논조, 기사 속 노인의 특성, 해당 특성에 대한 통제성 지각에 의해 어떻게 상이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서가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및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고령친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미디어와 뉴스 속 노인 이미지

노인에 대한 미디어의 시각은 그 미디어가 속한 사회의 문화, 태도,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미디어나 뉴스 속 노인의 이미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인식적 효과를 감안하면 노인에 관한 뉴스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노인에 대한 언론이나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내용분석에 그쳐 실질적으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언론 속 노인의 이미지에 대해 내용 분석한 연구들은 노인 관련 기사의 주제나 보도의 논조가 대체로 전형적이고, 노인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김미혜(2003)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반 신문이었던 ‘오마이뉴스’에 나타난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당시 노인에 대한 기사들은 노인의 질병, 성격, 여가생활 등 특정 주제만을 편향적으로 다루었으며 기사 속에 등장하는 노인의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성격에 대해 ‘과거지향적’, ‘내향적’, ‘폐쇄적’, ‘권위적’ 등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는 노인 집단의 성격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고정관념 구성모델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2010년도 이후의 뉴스 기사를 내용 분석한 연구 또한 노인에 대해 언론이 다루는 주제나 보도의 경향이 과거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오현정, 신경아, 2019). 이 연구가 김미혜(2003)의 연구와 다른 점은 기사 속에 등장하는 노인의 특성에 따라 기사의 논조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능력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 기사가, 성격에 대해서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많았는데, 이는 노인에 관한 기사가 주제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오현정과 신경아(2019)는 노인에 관한 기사들이 점차 노인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공론화하는 것이 아닌 노인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적 해법모색을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사하게 노인의 여가와 관련된 일간지 보도 기사를 내용 분석한 연구(오세숙, 김종순, 신규리, 2012)도 대부분의 기사가 단편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어, 노인을 위한 여가 시설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사회 공통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고령 집단의 내부적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광고나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노인의 이미지를 규명한 연구들은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노인의 이미지가 노인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2000년대 초반의 광고 속 노인이미지를 분석한 양정혜(2011)의 연구에 따르면 광고 속 노인은 주로 사회적 수혜와 돌봄의 대상으로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잡지광고 속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한 비교적 최근의 고정아와 이정교(2018)의 연구는 여전히 광고 속 노인 모델의 비중이 적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노인이 등장하는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으며 노인 이미지 역시 점차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노인에 관련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분석한 김숙과

박주연(2014)은 프로그램의 하위 장르 및 주제에 따라 노인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요약하자면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노인의 모습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논조로 나뉘기 보다는 상황 및 노인의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개별적으로는 미디어 속 노인 이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을 모색한 연구의 절대적 숫자가 부족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뉴스 기사의 내용과 노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론하고 있을 뿐, 언론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논조와 부각되어지는 특성이 수용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이 고령친화 정책에 대한 태도와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뉴스 기사의 논조가 수용자의 태도 및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언론의 영향력에 대한 방대한 문헌들은 대부분 언론에서 특정 대상을 보도하는 논조가 그 대상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왔다. 국내의 노인 관련 온라인 뉴스기사를 내용분석한 최근의 연구는 기사 안에 등장하는 노인의 특성 및 프레임에 따라 그 논조가 달라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기사의 논조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오현정, 신경아, 2019). 따라서 본 연구 역시 노인에 대한 뉴스 기사의 논조가 기사를 읽은 수용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노인에 대한 긍정적 논조의 기사를 읽은 수용자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를 읽은 수용자보다 노인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 2) 노인에 대한 정서: 연민과 공감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사하지만 다른 정서적 반응, 연민과 공감에 초점을 두고 노인

에 관한 뉴스 기사가 유발하는 정서적 반응의 상이한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노인 집단이 일반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강한 연민의 정서를 유발하는 집단이라고 보고해왔다(Cuddy & Fiske, 2002; Cuddy, Norton, & Fiske, 2005; Fiske, Cuddy, Glick, & Xu, 2002). 또한 연민의 정서는 유색 인종이나 이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Iyer, Leach, Crosby, 2003; Verkuyten,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노인 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또 노인정책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알려진 연민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민(compassion)은 ‘함께 괴로워하다(to suffer with)’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compati’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타인의 불행이나 괴로움에 대해 느끼는 슬픔이나 고통의 정서적 반응이다. 즉, 특정 상황에 처한 타인을 목격하였을 때 그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상상한 결과로 인해 내면으로부터 발현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Nussbaum, 2003). 연민은 이타적 행위가 발생하는 핵심 기제 중 하나로 주로 공익광고의 소구법이나 설득의 메커니즘으로 연구되어져 왔다(e.g., 박하연, 성영신, 김지연, 2013; Loewenstein & Small, 2007; Myrick & Oliver, 2015; Small & Verrochi, 2009).

한편, 최근의 연구는 연민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이나 공동체 의식과 같은 연대와 공감 의식을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안효미 & 남기범, 2019). 공감(empathy)은 ‘감정의 이입(in feeling)’을 의미하는 독일어 ‘einfuhlung’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타인의 정서적 상태나 상황을 목격함으로써 발생한다는 데에서는 연민과 유사하지만 타인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동일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고자 하는 능동적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Eisenberg & Strayer, 1987). 공감과 연민의 큰 차이점은 감정의 능동성이다. 연민은 타인의 힘든 상황과 괴로운 감정을 목격하거나 추측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수동적 정서 반응이라면, 공감은 자신을 상대의 입장에 대입하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행위이다. 즉, 공감은 타인의 생각, 감정, 행동의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자 하는 인지적 노력이 수반된다(Stewart, 1995).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나 인식이 아닌 특정 태도나 행동을 야기하는 동기적 기제이며,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Segal, Wagaman, & Gerdes, 2012).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사회적 약자를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돌봄과 수혜의 수직적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수평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야만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과 그로 인한 윤리적 책임감 또는 윤리적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김진경, 김택중, 2016).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한 문헌들 또한 매개 정서로서 공감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예컨대, 노인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을 살펴본 이영주, 박가인, 임명옥(2015)의 연구에서도 공감이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노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사의 관점이 노인에 대한 공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감은 세대 갈등 및 부양 부담 인식을 낮추고 고령친화 정책 수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양정남, 최은정, 김화선(2020)은 대학생들의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에 대한 지식이 공감을 매개로 하여 노인에 대한 차별인식을 낮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감을 연민과 함께 중요한 정서적 반응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부정적 뉴스 기사가 긍정적 뉴스 기사보다 강한 연민의 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았다. 연민이 발생하는 기제에 대해 누스바움(Nussbaum, 2015)은 타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 및 고통의 강도에 대한 평가가 연민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즉, 타인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거나 그 상황을 경험하는 타인이 경험하는 괴로움이 클수록 대상에게 느끼는 연민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적 기사보다 부정적 기사가 연민을 더 강하게 유발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부정적 논조의 기사를 읽은 수용자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를 읽은 수용자보다 노인에 대한 연민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다.

한편, 기사의 논조가 노인에 대한 수용자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설득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메시지보다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메시지가 공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e.g., 이호배, 정주훈, 1999; Bagozzi & Moore, 1994). 이는 부정 정서가 긍정 정서보다 더 강한 정서적 환기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긍정적 정서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긍정적 감정을 더 잘 표현하고 지각하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대상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더욱 공감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Gong, 2007). 실제로 월드컵 보도 사진의 공감 효과를 실험한 이재신, 김지은, 최문훈(2011)의 연구에서는 환희의 감정을 표현한 사진이 좌절을 표현한 사진보다 더 높은 공감과 구전 의도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정서와 공감의 관계에 대해 텔레와 피스터(Telle & Pfister, 2012)는 흥미로운 연구를 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거나 부정적 상황에 처한 대상에게 행하는 도움은 공감을 매개로 하지 않는 반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대상에 대한 도움은 공감을 매개로 하여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특정 메시지에 대한 공감을 유발하는 것은 부정적 소구의 영향력이 강하지만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공감은 대상이 표현하는 감정이 긍정적일 때 공감의 정도가 더욱 강하고 그것이 행동 변화에 유의미한 매개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메시지의 특성 즉, 논조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문헌이 축적되지 않은 바, 본 연구는 기사의 논조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문제 1. 노인에 대한 기사의 논조는 기사 속 노인에 대한 수용자의 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고정관념 구성모델 : 노인의 능력과 성격의 상호작용

고정관념 구성모델(Fiske et al., 2002)에 따르면 개인은 특정 집단을 그 집단이 보유한 성격과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지각하게 되며, 이러한 지각을 바탕으로 그 집단에 대한 인지적 태도 및 정서적 반응을 형성하고 대응 행동을 결정한다(Fiske et al., 2002).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집단에 대해 능력과 성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사람들은 그 집단 구성원들을 존경하고 어떤 부정적 편견을 갖지 않는다. 특정 집단에 대해 능력은 높게 지각하나 성격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사람들은 질투를 느끼거나 경쟁의식을 지각할 수 있다. 한편, 능력은 낮게 지각하지만 성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사람들은 온정주의적 편견을 갖게 되는데, 이는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수반한다. 마지막으로 능력과 성격 모두를 부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사람들은 혐오와 멸시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노인은 타 세대에게 보편적으로 심리적



으로 따뜻하지만 능력적으로는 무능력한 집단으로 지각되어지며, 이러한 현상은 서구 사회 뿐 아니라 홍콩,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Cuddy et al., 2009). 고정관념 구성모델에서는 특히 특정 대상의 무능력함보다 부정적 성격이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낙인을 형성하는 데 더욱 핵심적인 속성임을 설명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지각은 그 사회에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관념에 의해 왜곡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지각은 그에 대응하는 태도와 행동을 유발한다. 즉, 노인은 무능력하다는 지각은 노인 집단에 대한 타 세대의 지나친 연민을 자극하여 노인 스스로의 자존감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노인의 역할 상실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부정적 성격에 대한 지각은 노인에 대한 직접적 멸시나 혐오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사회의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뉴스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여, 노인의 능력과 성격에 대한 뉴스 기사의 논조가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록 고정관념 구성모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는 외모를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는 사회이며, 노화가 점차 관리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지는 상황에서 외모는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요인이다. 일찍이 존스와 동료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보유한 지배적 속성의 가시성(visibility)이 높을 때,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Jones et al., 1984). 또한 고프만은 가시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특정 집단의 속성은 타 집단의 낙인 행동을 더욱 강하게 유발하며, 특정 속성의 가시성이 높을수록 낙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감추고자 노력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Goffman, 1963).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흰머리, 주름, 김버섯, 구부정한 자세 등의 외모적 표상은 쉽게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차별하고 노인 세대를 타 세대와 구분 짓는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 기사에 노출된 노인의 특성(i.e., 성격, 능력, 외모)이 기사의 논조와 함께 노인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및 정서적 반응(연민, 공감)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안한다.

연구문제 2. 기사의 논조가 응답자의 노인 태도, 연민,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사에서 드러난 노인의 특성(성격, 능력, 외모)에 의해 조절되는가?

#### 4) 낙인의 이중경로 모델: 지각된 통제성의 조절 효과

낙인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고착화되어 해당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강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Goffman, 1984). 그러나 낙인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항상 부정적 반응만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Pryor, Reeder, Yeadon, & Hesson-McInnis, 2004). 부정적 속성을 보유한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경로의 심리적 처리과정을 거치는 데, 그중 하나는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처리하는 경로(automatic process)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적 통제 하에 있는 합리적 처리 경로(controlled process)이다 (Pryor, Reeder, & Landau, 1999). 부정적 속성을 보유한 집단에 대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감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스스로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낙인의 이중경로 모델(Dual Process Model of Reactions to Perceived Stigma)에 따르면, 사람들은 낙인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적 반응의 타당성을 해당 집단이 보유한 현저한 속성의 통제성(controllability)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된다 (Pryor et al., 2004). 즉, 사람들은 특정 대상을 목격하였을 때, 그 대상의 현저한 속성(attribute)이 그 대상의 통제 하에 있는 내부적 요인인지 혹은 그 대상이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감정적 반응을 결정한다(Pryor et al., 2004). 예컨대, 낙인을 유발한 요인이 외부에 있을 경우, 개인은 반사적으로는 혐오와 거부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만, 이러한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부적절한 감정을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낙인을 유발한 속성이 통제가 가능한 자체적 요인일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반응을 합리화하고 이를 유지하게 된다.

낙인의 귀인-감정 모델(Attribution-Emotion Model of Stigmatization) 역시 유사하게 낙인의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낙인을 유발한 속성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Weiner, 1993). 즉, 낙인의 대상이 낙인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지각할 경우, 사람들은 낙인의 대상에게 혐오나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반면, 낙인의 대상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낙인이 발생하였다면, 사람들은 낙인의 대상에게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두 모델은 공통적으로 낙인을 유발한 속성의 통제성이 사람들이 낙인의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인이 보유한 지배적 특성에 대해 타 세대가 얼마나 통제성을 지각하는 지에 따라 노인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적 혹은 인지적 능력의 저하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의 권위적 태도나 보수성과 같은 부정적 성격에 대해서 타 세대는 이를 노인 스스로의 내적 성찰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성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3. 응답자는 노인의 성격에 대한 통제성을 능력에 대한 통제성보다 높게 지각할 것이다.

외모의 경우, 다른 속성과 달리 통제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과거부터 외모의 노화는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여겨졌으나, 성형이나 미용적 시술을 이용한 외모의 관리는 연령을 초월하였으며, 특히 현대 사회의 여성들은 젊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송유진, 2012). 외모 자체도 과거에는 개인의 통제성 밖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미용이나 성형 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관리가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안순태, 오현정, 정순돌, 2017). 외모의 관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외모에 대한 통제성 증가로 이어져 노인의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가 노인에 대한 차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사람들은 노인의 외모에 대한 통제성을 노인의 성격과 능력에 비해 어떻게 지각하는가?

한편, 속성에 대한 통제성 지각이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낙인의

이중경로 모델은 해당 속성에 대한 통제성 지각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그 속성을 보유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감정을 합리화한다고 하였다(Pryor et al., 2004). 즉, 노인의 특정 속성에 대한 부정적 정보의 노출은 해당 속성의 통제성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속성의 통제성이 높은 경우, 사람들은 노인 스스로가 그 속성을 보유하게 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통제성이 낮은 속성의 부정적 측면에 노출된 경우, 이에 대해 노인 스스로가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즉, 낙인의 이중경로 모델은 기사의 논조가 응답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사 속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응답자의 통제성 지각이 높을수록 더욱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노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 또한 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통제성을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스바움(Nussbaum, 2015)은 연민이 발생하는 기제 중 하나가 바로 고통의 당위성이라고 설명한다. 즉, 우리는 상대가 경험하고 있는 괴로움이 타인의 책임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면 그 대상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결과로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연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사 속 노인의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통제성과 책임성을 높게 지각한다면 노인에 대한 연민 역시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공감에 대한 문헌 역시, 대상에 대한 공감은 상대가 처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다(Newmann & Strack, 2000). 그중 질만(Zillmann, 1991)은 공감이 발생하는 중요한 기제로 대상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미디어 속 인물이 수용자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수용자가 인물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디어 속 인물을 수용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공감이 발생하고 그 결과 해당 인물의 성공과 행복을 원하게 되는 반면, 특정 인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경우 반감이 발생하고 고통이나 실패를 통쾌하거나 마땅하다고 여기게 된다. 종합하자면, 연구의 맥락은 다르지만 일련의 문헌들은 특정 상황에 처한 대상에 대한 태도 및 정서적 반응은 그 상황을 야기한 대상의 책임 혹은 상황을 통제할만한 대상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사의 논조가 응답자의 태도, 연민,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응답자가 지각한 해당 속성의 통제성이 높을 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4. 기사의 논조가 노인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연민,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용자가 지각하는 기사 속 특성의 통제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특성에 대한 통제성 지각이 높을 경우, 기사의 논조가 노인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연민,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제성 지각이 낮은 경우보다 더욱 강할 것이다.

## 5)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 및 지지 의도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반응이 노인을 위한 정책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수 집단 혹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중요하며, 특히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필수적 요소이다(이지은, 이재완, 2015). 하지만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재분배 정책(re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종 복잡한 사회구조적 이해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Lowi, 1964). 따라서 정책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정책 수혜집단에 대해 긍정적, 호의적 태도를 갖는 것은 원만한 정책 집행을 위한 필수요소이다(원숙연,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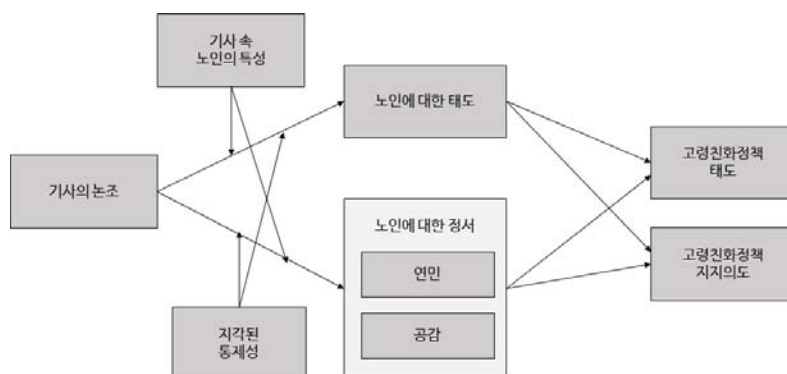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해관계나 이념, 가치 등의 측면을 반영하는 인지적 차원과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감정을 반영하는 정서적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책 태도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정치적 성향, 정당 지지도, 정부 신뢰도 등과 같은 이념적 요인과 개인이 처한 사회구조적 상황에 따른 이해관계 요인이 정책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왔다. 반면, 정서적 차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정책의 대상 집단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관련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원숙연, 2011). 즉, 수혜 집단에 대한 감정적 좋고 싫음에 따라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 내 소수인종에 대한 국가 정책 수용성을 살펴본 원숙연(2011)의 연구는 정책 대상이 되는 소수 인종에 대한 평가가 해당 인종을 지원하는 정책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를 살펴본 박재근과 장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사회적 지위와 제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고령 집단에 대한 신뢰가 해당 제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복지 정책에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 사람들은 사회권의 보장이나 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같은 추상적인 혹은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그 태도가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Hasenfeld & Rafferty, 1989). 이는 원칙적인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이해관계가 개입하게 되는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되는 모순적인 면모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집단과 관련된 세부 사안에 대해 해당 사안이 집단 구성원의 통제 밖에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지 등에 개별 사안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반응이 노인 친화 정책에 대한 태도와 정책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4.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와 정서적 반응(연민, 공감)은 고령 친화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와 정서적 반응(연민, 공감)은 고령 친화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지지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총 4개의 가설과 5개의 연구문제를 통해 노인에 대한 기사의 논조가 노인친화 정책에 대한 타 연령대의 태도 및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로를 <그림 1>로 도식화 하였다.



<그림 1> 가설과 연구 문제의 도식화

### 3. 연구방법

####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뉴스 기사의 논조(긍정 vs. 부정)와 뉴스 기사에서 지배적으로 묘사되는 노인의 특성(능력 vs. 성격 vs. 외모)을 2 x 3의 집단 간 설계로 조작하고, 개별 특성에 대한 응답자의 통제성 지각을 집단 내 차이 즉, 개인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혼합된 요인 설계(Mixed Factorial Design)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의 유사 실험 연구로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국내 조사회사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보유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뉴스 기사 평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패널 959명에게 설문조사 링크 보낸 후, 실험 참여에 동의한 패널들은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웹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인구통계 정보를 제공한 후, 노인의 외모, 능력, 성격에 대해 지각하는 통제성을 묻는 항목에 응답하였다. 사전 설문에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들은 노인에 관한 6개의 온라인 뉴스 기사 중 하나에 무작위로 노출되었다. 신문 기사를 읽는 시간에는 따로 제약을 두지 않았다. 신문 기사를 다 읽은 후, 응답자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조작 점검을 위한 항목에 응답을 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 연민, 공감, 고령친화정책 태도, 그리고 고령친화정책 지지의도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였다. 모든 설문에 대한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는 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참여에 대한 대가로 조사회사로부터 현금화 가능한 소정의 포인트를 제공받았다.

#### 2) 응답자 특성

설문 링크를 받은 총 959명 중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600명이었다(응답률 62.6%). 응답자의 51%에 해당하는 306명이 남성이었으며, 전체의 23%가 19-29세, 24%가 30-39세, 27%가 40-49세, 26%가 50-59세였다. 한편, 응답자의 약 27%에 해당하는 161명은 65세 이상 노인과 평소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25%는 가끔 노인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13%에 해당하였으며, 15%는 정기적으로 노인 가구를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 [노인의 날] 성난 노인들

AS면 TOP : 기사입력 2017-10-02 01:19 최종수정 2017-10-02 02:1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163 42 211 14

요약 글 가



지난 1일 서울 성북동에서 만난 여든을 갓 넘긴 최흥식 할아버지(82)는 최근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평소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다.

“혼자 있으면 막 외롭고 마음이 불안해서 신경질이 난다”는 최 할아버지는 “사회로부터 대접을 못 받는다는 박탈감에 화도 나고 슬프다”면서 특히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대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버려장머리가 없다고 훈계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분노가 폭발해 나와 종종 싸움에 휘말리곤 한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K노인복지재단에서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년층 분노지수 조사’ 결과, 서울경기 거주 60세 이상 노인의 30%는 경미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70%는 평소에도 종종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될 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항목에 6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끔 종종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다’는 항목에도 5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 설문조사에는 남성 50%, 여성 50%, 연령대는 70대가 50%, 60대 30%, 80대 20%가 참여했다.

박지원 기자(park1@ypnews.com)

〈그림 2〉 자극물 예시 (성격 x 부정)

### 3) 실험 자극물

실험연구에 필요한 총 6편의 온라인 뉴스기사가 제작되었다. 기사의 형식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복지재단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인 인터뷰와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 〈그림 2〉는 실제로 실험에 활용한 뉴스 기사의 예시이다. 기사의 좌측 상단에는 에피소드를 반영하는 사진이 위치하였다.

실험을 위한 뉴스 기사는 일련의 사전조사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노인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해 최근에 실시한 내용 분석 연구(오현정, 신경아, 2019)를 참고하여 노인에 대한 뉴스가 주로 다루는 주제를 특성 별로 긍정 혹은 부정적 논조로 각 4건씩



제작하였다. 총 12건의 기사는 실제 응답자와 동일한 인구통계 쿼터로 구성된 총 2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응답자는 무작위로 6건의 기사를 읽고 각 기사의 특성(능력, 성격, 외모), 논조, 현실성, 허구성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6건의 기사는 (1) 각 특성이 의도한 바대로 평가되었는가, (2) 기사의 논조 즉, 기사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정도가 유사한가, 그리고 (3) 기사가 허구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라고 평가되었는가의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선택되었다. 또한 논조에 대한 평가가 기사의 주제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바, 자극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부정성의 점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자극물은 배제하여 공부정도의 정도를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성격에 관한 긍정적 기사의 경우, 폐품을 팔아 모은 돈을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한 사연으로 구성되었고, 부정적 기사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에 대한 불만과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노인에 관한 기사로 구성되었다. 노인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기사는 노인의 적극적 경제활동에 관한 기사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기사는 인지적 능력이나 반응속도로 인해 운전이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외모에 관한 기사의 경우, 긍정적 논조의 기사는 노인의 적극적 외모 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진 노인의 에피소드로 구성하였다. 반면, 외모에 관한 부정적 논조의 기사는 눈꺼풀이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등 스스로의 외모에 불만족하고 있는 노인에 관한 기사로 구성되었다.

조작점검 결과, 지배적 노인 특성과 그에 대한 논조가 기사 안에서 잘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길이는 가장 짧은 기사가 535자였고, 가장 긴 기사가 656자였다 ( $M=606.8$ ).

표 1. 조작 점검 결과

이 기사는 노인에 대해...	긍정적 기사	부정적 기사	<i>t</i>	
긍정적 어조로 쓰여진 기사이다.	<b>3.98 (.85)</b>	2.52 (.74)	16.28***	
부정적 어조로 쓰여진 기사이다.	1.68 (.80)	<b>2.83 (.93)</b>	-22.47***	
이 기사는 노인의...	성격	능력	외모	<i>F</i>
능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63 (1.11)	<b>4.09 (.70)</b>	2.51 (.96)	177.72***
성격 및 성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b>3.56 (1.01)</b>	2.71 (1.08)	2.65 (.98)	38.10***
외모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74 (.88)	1.70 (.81)	<b>3.74 (.84)</b>	382.35***

\* $p < .05$ , \*\* $p < .01$ , \*\*\* $p < .001$

#### 4)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지각된 통제성,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 차별, 노인 회피, 그리고 노인 정책 태도를 포함하는 5개의 변인이 측정되었다. 개별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과 기술 통계치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노인 태도는 김육(2011)의 연구에서 활용된 14문항 중 3개의 의미분별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김육의 노인 태도 척도는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다차원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어, 본 연구는 단순한 선호를 반영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3개의 문항은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alpha=.737$ ),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연민은 노인이 처한 상황 혹은 노인이 표출하는 정서에 의해 자극되어지는 안타까움 혹은 슬픔을 의미한다(정수영, 2015). 본 연구에서는 연민을 노인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걱정, 염려, 가여움의 정서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한 3개의 항목으로 측정 항목을 구성하였다. 측정은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3개 항목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lpha=.874$ ).

공감의 경우,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가변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였고, 상대에 대한 이해, 대리적 감정반응, 감정적 동일시를 반영한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소현진, 2014), 측정은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lpha=.869$ ).

고령친화정책 태도의 경우, 고령친화 주택 확대, 건강 관련 복지 확대 등 총 5가지 노인 친화 정책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lpha=.913$ ).

고령친화정책 지지의도는 고령 인구 지원 예산 확충, 고령친화 정책 수립 등 정부의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지지 및 협조 의도를 총 4개의 항목으로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4개 항목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나( $\alpha=.938$ ), 평균값을 산출하여 해당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통제성은 웨이너(Weiner, 1993)의 지각된 통제성 측정 방식을 활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외모, 능력, 성격적 특성을 반영한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노인이 스스로 통제 혹은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지에 대해 관리가 매우 어렵다(1)부터

관리가 매우 쉽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격적 특성의 경우, 보수적 성향의 증가, 권위적 사고의 증가 등 노인의 성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식을 반영하는 항목 4개에 대한 통제성 지각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alpha=.877), 능력은 학습 능력 감퇴, 업무 능력 감퇴 등 노인의 인지적 역량의 감소를 반영한 3개의 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alpha=.876). 외모의 경우, 주름의 증가, 피부 탄력의 감소 등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외모적 특성을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통제성 지각의 정도를 측정하였다(alpha=.706).

표 2. 측정도구의 기술통계치

측정 항목	Mean	SD
<b>노인 태도</b>	<b>2.94</b>	<b>0.64</b>
호의적인/비 호의적인	2.97	0.87
좋은/나쁜	2.91	0.69
매력적인/매력적이지 못한	3.29	0.80
<b>연민</b>	<b>2.65</b>	<b>0.98</b>
기사 속 노인에게 연민을 느낀다.	2.70	1.07
기사 속 노인이 가엽다고 생각한다.	2.47	1.06
기사 속 노인이 염려된다.	2.79	1.16
<b>공감</b>	<b>3.55</b>	<b>0.79</b>
기사 속 노인의 인터뷰 내용에 동의한다.	3.60	0.86
기사 속 노인의 감정이 공감된다.	3.60	0.85
내가 기사 속 노인이었다라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3.46	0.95
<b>고령친화정책 태도</b>	<b>4.03</b>	<b>0.74</b>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개조된 주택들이 많이 지어져야 한다.	3.99	0.84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4.01	0.85
노인들이 활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지역사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4.07	0.81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 및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4.04	0.82
노인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체계가 조정되어야 한다.	3.79	0.92
<b>고령친화정책 지지의도</b>	<b>3.63</b>	<b>0.83</b>
나는 지자체에서 노인 친화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	3.71	0.87
나는 정부가 고령 인구를 지원 예산을 늘리고자 한다면 지지할 것이다.	3.59	0.95
나는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법 제정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	3.61	0.90
나는 정부의 고령 친화적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	3.62	0.89

측정 항목	Mean	SD
<b>성격통제성</b>	<b>2.85</b>	<b>0.79</b>
보수적 성향의 증가	2.93	0.98
권위적 사고 경향 증가	2.87	0.95
비관적 사고 증가	2.88	0.90
감정기복의 심화	2.73	0.87
<b>능력통제성</b>	<b>2.31</b>	<b>0.79</b>
기억력 감퇴	2.16	0.89
학습 능력 감퇴	2.29	0.86
업무 능력 감퇴	2.47	0.89
<b>외모통제성</b>	<b>2.07</b>	<b>0.70</b>
주름의 증가	2.09	0.84
피부 탄력의 감소	2.06	0.80
흰머리 증가	2.07	1.02

## 5) 분석 전략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사의 논조에 따라 응답자의 노인 태도, 연민, 공감의 정도가 달라지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가설 1-2, 연구문제 1). 또한 노인 태도, 연민,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의 논조와 기사 속 노인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2). 한편, 노인의 특성(성격, 능력, 외모)의 통제성 지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응 표본 *t*검증이 실시되었다(가설 3, 연구문제 3). 기사의 논조와 기사 속 노인의 통제성 지각이 상호작용하는가는 헤이즈의 조절효과모델 매크로(Model 1)를 활용하였다(가설 4).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연민, 공감이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 및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되었다(연구문제 4-5). 다항목으로 측정된 변인들은 신뢰도를 검증한 후,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결과의 검증은 95% 신뢰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가설 3과 연구문제 3을 제외한 나머지 분석은 모두 응답자의 연령과 기존 노인 교류 경험을 통제한 후 실시되었다.

## 4. 결과

### 1) 기사의 논조가 노인 태도, 연민, 공감에 미치는 영향

기사의 논조에 따른 노인 태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기사의 논조에 따른 노인의 태도를 제안한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노인에 관한 긍정적 기사를 읽은 응답자의 노인 태도( $M=3.08$ ,  $SD=.67$ )가 노인에 관한 부정적 기사를 읽은 응답자의 노인 태도( $M=2.80$ ,  $SD=.57$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이 차이는 연령과 노인 경험을 통제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5.93$ ,  $p<.001$ ).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기사의 논조가 응답자의 연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가설 2의 경우, 반대로 부정적 기사를 읽은 응답자의 노인에 대한 연민( $M=3.25$ ,  $SD=.74$ )이 긍정적 기사를 읽은 응답자( $M=2.05$ ,  $SD=.81$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t=-18.90$ ,  $p<.001$ ).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기사의 논조가 응답자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연구문제 1), 태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기사에 노출된 응답자( $M=3.74$ ,  $SD=.73$ )가 부정적 기사를 읽은 응답자( $M=3.36$ ,  $SD=.81$ )보다 노인에게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6.01$ ,  $p<.01$ ).

표 3. 기사의 논조에 따른 노인 태도의 차이

변인	긍정적 기사	부정적 기사	$t$
태도	<b>3.08 (.67)</b>	2.80 (.57)	5.93***
연민	2.05 (.81)	<b>3.25 (.74)</b>	-18.90***
공감	<b>3.74 (.73)</b>	3.36 (.81)	6.01***

\* $p<.05$ , \*\* $p<.01$ , \*\*\* $p<.001$

### 2) 기사의 논조와 기사 속 노인의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연구문제 2는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의 특성이 갖는 조절 효과에 관한 것으로 앞선 가설과 연구문제에서 분석한 기사의 논조가 노인에 대한 태도, 연민,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의 지배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

본 것이었다. <표 4>는 각 조건별로 기사를 읽은 응답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민, 공감의 평균을 기술한 것이다.

표 4. 노인 특성과 기사의 논조에 따른 노인 태도의 차이

변인	성격		능력		외모	
	긍정	부정	능력	부정	긍정	부정
태도	3.20 (.74)	2.64 (.60)	3.15 (.56)	2.85 (.53)	2.90 (.66)	2.91 (.56)
연민	2.41(.91)	3.12 (.73)	1.88 (.64)	3.48 (.65)	1.86 (.76)	3.17 (.79)
공감	3.72 (.77)	2.84 (.80)	3.84 (.64)	3.75 (.64)	3.65 (.75)	3.50 (.68)

연령과 응답자의 노인 경험을 통제한 후,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사의 논조와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의 특성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노인에 대한 태도 ( $F(2, 597)=10.87, p<.001$ ), 연민( $F(2, 597)=10.47, p<.001$ ), 공감( $F(2, 597)=9.44, p<.001$ ) 모두에서 나타났다. <표 5>는 기사의 논조와 노인의 특성이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연민, 공감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노인 특성과 기사 논조의 상호작용 효과

	DF	태도		연민		공감	
		MSB	F	MSB	F	MSB	F
연령	1	.497	1.33	.02	.04	.22	.42
노인 경험	1	.177	.47	.03	.06	2.23	.27
기사 논조	1	11.98	2.95	216.76	20.75***	21.02	2.23
노인 특성	2	.53	.13	3.34	.32	13.61	1.44
논조 x 특성	2	4.07	10.87***	10.47	18.56***	9.44	18.60***

\* $p<.05$ , \*\* $p<.01$ , \*\*\* $p<.001$

노인 태도의 경우, 노인의 성격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 응답자의 노인 태도가 논조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 났으며, 그 다음으로 외모, 능력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연민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 기사보다 부정적 기사에서 연민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성격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감의 경우, 성격의 긍부정성에 따른 차이가 능력이나 외모에 따른 차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은 상호작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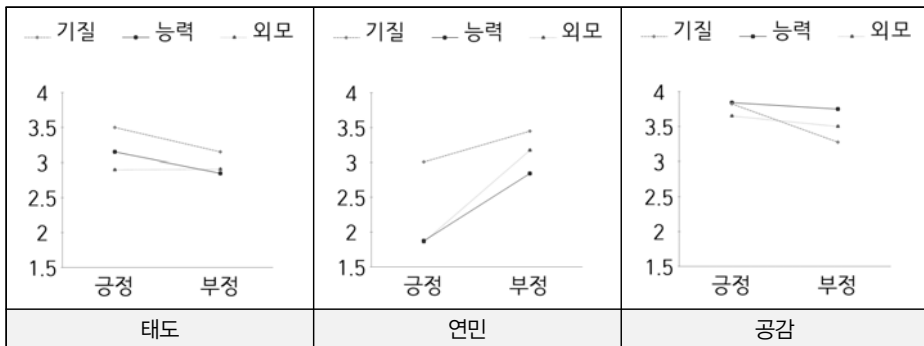


그림 3. 기사 논조와 노인 특성의 상호작용 양상

### 3) 지각된 통제성의 조절 효과

가설 3은 노인의 성격과 노인의 능력에 대한 응답자의 통제성 지각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고, 연구문제 2는 응답자가 지각하는 노인의 외모에 대한 통제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의 성격, 능력, 외모에 대해 응답자가 지각한 통제성을 각각 대응 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6. 노인의 성격, 능력, 외모에 대한 통제성 지각 차이

집단 1		집단 2		<i>t</i>
변인	M(SD)	변인	M(SD)	
성격 통제성	<b>2.85 (.79)</b>	능력 통제성	2.31 (.79)	16.63***
성격 통제성	<b>2.85 (.79)</b>	외모 통제성	2.07 (.70)	19.23***
능력 통제성	<b>2.31 (.79)</b>	외모 통제성	2.07 (.70)	6.49***

\* $p < .05$ , \*\* $p < .01$ , \*\*\* $p < .001$

성격에 대한 응답자의 통제성 지각( $M=2.85$ ,  $SD=.79$ )은 능력( $M=2.31$ ,  $SD=.79$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16.63$ ,  $p < .001$ ).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한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외모에 대한 통제성 지각( $M=2.07$ ,  $SD=.70$ )은 성격( $t=19.23$ ,  $p < .001$ )이나 능력( $t=6.49$ ,  $p < .001$ )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기사의 논조와 기사 속 노인의 통제성 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응답자의 연령과 노인 경험을 통제한 후 헤이즈의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Model 1)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요약하자면 기사 논조와 통제성의 상호작용은 연민( $b=.16$ ,  $p < .05$ )과 공감( $b=.20$ ,  $p < .001$ )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기사 논조와 지각된 통제성의 상호작용 효과

	태도	연민	공감
연령	-.00 (.00)	.00 (.00)	.01 (.00)**
경험	.02 (.02)	.00 (.02)	.01 (.02)
논조	.27 (.16)	<b>-1.59 (.20)***</b>	-.13 (.20)
통제성	.07 (.10)	-.19 (.13)	<b>-.42 (.12)**</b>
논조x통제성	.01 (.06)	<b>.16 (.08)*</b>	<b>.20 (.08)**</b>
상수	2.40 (.28)	13.98 (.35)***	3.59 (.34)***
R <sup>2</sup>	.06***	.38***	.10***

Note. 각 셀의 값은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 오차임.

\* $p < .05$ , \*\* $p < .01$ , \*\*\* $p < .001$

연민의 경우, 통제성 지각이 낮을 때 기사의 논조에 관계없이 연민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통제성 지각이 높을 때는 전반적으로 연민이 낮았고, 기사의 논조가 주는 영향력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의 경우에도 통제성이 낮을 때에는 기사 논조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제성에 대한 지각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기사에서 공감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강했다. 종합하자면,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연민과 공감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은 노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었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림 4>는 상호작용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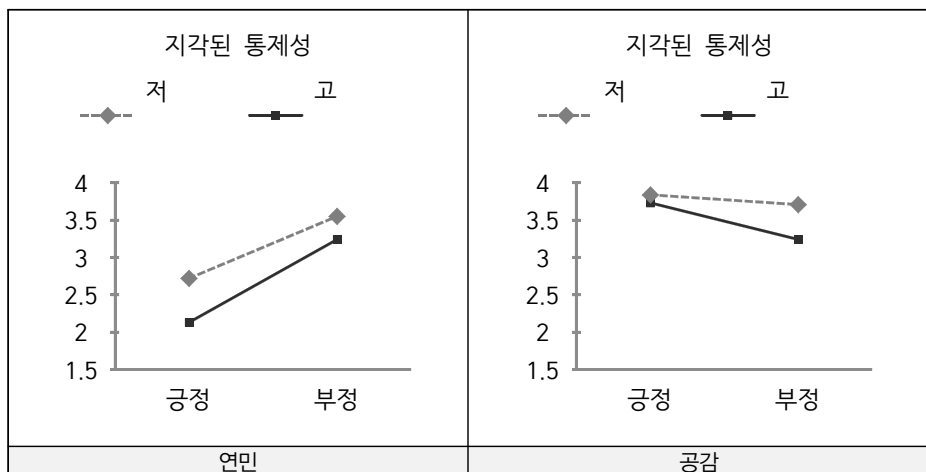


그림 4. 기사 논조와 지각된 통제성의 상호작용 양상



#### 4) 노인 태도, 연민, 공감이 고령친화정책 태도 및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5는 응답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민, 공감이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 및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것이었다. 응답자의 연령과 노인 경험을 통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의 경우, 태도, 연민, 공감을 포함한 모델의 설명력은 4%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응답자의 태도와 공감만이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었다. 즉,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beta=.15, p<.001$ ) 또한 노인에 대해 공감 할수록( $\beta=.17, p<.001$ )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고령친화정책 지지의도의 경우, 노인에 대한 공감( $\beta=.22, p<.001$ )만이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8. 노인 태도, 연민, 공감이 노인 정책 태도 및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령친화정책 태도		고령친화정책 지지의도	
	$\beta$ (SE)	adj. R <sup>2</sup> △	$\beta$ (SE)	adj. R <sup>2</sup> △
연령	-.03 (.00)	.00	.01 (.00)	.01*
경험	.08 (.02)		.09 (.03)*	
태도	.15 (.05)***	.04***	.02 (.05)	.05***
연민	.04 (.03)		.08 (.03)	
공감	.17 (.04)***		.22 (.04)***	

### 5. 논의 및 결론

#### 1) 연구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뉴스 기사의 논조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묘사된 노인의 특성이 응답자의 감정적 반응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당 관계에 응답자가 지각하는 통제성 인식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응답자가 보유한 노인에 대한 태도, 연민, 그리고 공감의 정서적 반응이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및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사의 논조에 따른 응답자의 노인 태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즉, 긍정적으로 작성된 노인에 관한 기사는 부정적으로 작성된 기사보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야기하고, 노인 집단에 대한 응답자의 공감을 높였다. 반면, 긍정적으로 작성된 기사보다 부정적으로 작성된 기사가 응답자들의 노인에 대한 연민을 더 효과적으로 유발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최근 뉴스 기사의 경향이 여전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감안하였을 때(오현정, 신경아, 2019),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와 동정적 반응에 미디어가 일부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사 논조의 주효과는 대부분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상쇄되었다. 즉, 노인에 대한 기사의 논조는 기사 속에 나타나는 노인의 지배적인 특성 그리고 기사 속 특성에 대해 응답자가 지각하는 노인의 통제력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사의 프레임 즉, 논조가 응답자에게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기사의 주제, 기사 속 노인이 처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 중 하나는 기사의 논조와 기사가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노인의 특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연민, 그리고 공감에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먼저, 노인에 대한 태도의 경우, 성격에 대한 기사가 논조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연민의 경우에는 기사의 논조에 따른 차이가 외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능력, 그리고 성격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공감의 경우 반대로 성격에 대한 기사의 공부정성이 공감의 차이를 가장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능력이나 외모는 기사의 논조에 따른 공감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종합하자면 노인의 성격에 대한 뉴스 기사는 연민을 유발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감이나 태도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노인의 능력, 외모에 대한 기사는 연민과 관련이 깊었으나 공감과는 관련이 없었다.

고정관념 구성모델에 따르면 특정 집단의 성격적 속성이 해당 집단에 대한 타 집단의 낙인이나 부정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iske et al., 2002).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성격이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와 공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노인에 대한 최근의 미디어 담론들은 노인의 성격을 과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듯 보인다(오현정 & 신경아, 2019; 이정교, 2018). 그러나 ‘틀딱’, ‘꼰대’ 등 노인의 부정적 성격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노인의 성격에 대한 타 세대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김효정,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줄이는 것이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태도를 줄이고 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뉴스 기사의 특성과 논조가 노인에 대해 타 세대가 느끼는 연민과 공감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기존 문헌들은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왔으며, 특히 감정의 능동성과 상대를 인식하는 관점에서의 차이를 두고 이 두 정서를 비교해 왔다(정수영, 2015). 공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대에 대한 인정, 관계에 대한 수평적 관점, 상대를 이해하려는 능동적 노력을 수반한다. 반면, 연민은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타인을 위하는 이타적 동기로 인해 발생하며 그 감정은 괴로움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의 한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논조보다 부정적 논조의 기사에서 연민의 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능력과 외모에 대한 기사에서 논조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민은 타인을 걱정하는 인류애적인 정서로 그 감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노인 집단에 대한 온정주의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노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도움과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세대 간 화합이나 연령 통합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정서라고만은 할 수 없다(Cuddy et al.,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을 무능력하게 묘사하거나 노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기사가 많을수록 그 사회 구성원들은 노인에 대해 강한 연민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감의 경우, 긍정적 논조의 기사에서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수용자의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기사 속 노인에게 수용자들은 크게 공감하였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거나 긍정적 단면을 보여주는 대상에 대해 인간이 더 큰 호감을 느끼고 공감한다는 기존의 문헌과 일치하는 결과이며(Gong, 2007; 최문훈, 2011), 상대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만(Zilmann, 1991)의 주장과도 상응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나 도움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에 대한 연구에서 기부를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결과와 만족감을 강조하는 긍정 프레임과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 혹은 죄책감을 강조하는 부정 프레임의 효과는 일관되기 보다는 개인의 성향, 위협성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e.g., McGregor, Ferguson, & O'Carroll, 2011; 이승조 & 최남도, 2011). 이에 대해 텔레와 피스터(Telle & Pfister, 2012)는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도움은

공감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도움은 공감을 거치지 않고 부정적 정서가 직접 도움의 행위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또한 공감과 연민이 유사하지만 다른 기제로 발현되는 정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기존 문헌들의 주장과 종합하여 볼 때 노인에 대해 미디어가 부정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경우 수용자에게 연민을 유발하고, 미디어가 노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공감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응답자의 통제성 지각이 뉴스 기사의 논조의 영향력을 조절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개별 속성(성격, 능력, 외모)에 대한 통제성 지각의 정도가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성격에 대한 통제성 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능력, 외모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설을 통해 예상한대로 응답자는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지적, 능력의 저하와 외모의 변화는 성격적 속성보다 통제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특히 외모의 경우,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노인 개개인도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송유진, 2012), 본질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성격이나 능력과 같은 다른 특성에 비해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사의 논조와 통제성 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는 응답자의 정서적 반응 즉, 연민과 공감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민의 경우, 통제성에 관계없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읽은 응답자들은 긍정적 기사를 읽은 응답자보다 기사 속 노인에게 더 강한 연민을 느꼈으며, 해당 속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통제성이 높을 때 그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 공감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노인의 통제성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논조에 관계없이 노인에 대한 공감이 높았던 반면, 통제성을 높게 지각한 경우에는 기사 속 논조가 긍정적일 때 노인에 대한 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두 가지의 정서적 반응 모두 통제성을 높게 지각하였을 때 기사의 논조에 따른 정서적 반응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방향성은 서로 반대로 나타났다. 통제성을 낮게 지각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통제성이 높은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연민과 공감의 감정을 보였다. 이는 연민과 공감의 감정 모두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성 혹은 대상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당위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Newmann & Strack, 2000; Zilmann, 1991). 즉, 연민과 공감은 모두 상대가 처한 상황을 목격한 결과로 나타나는 반사적 반응이 아닌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

가를 수반한 정서라고 볼 수 있다.

낙인의 이중경로 모델(Pryor et al., 2004)에서 사람들은 낙인의 대상이 되는 상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그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제성에 근거하여 평가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낙인의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연민과 공감의 정서 모두 통제성에 대한 평가에 의해 일부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그 과정이 낙인의 이중경로 모델에 부합하는 지는 알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특성에 대한 정보와 통제성에 대한 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보유한 특성에 대해 수용자가 지각하는 통제성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에 대한 기사 작성을 위한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노인이 경험하는 외모 및 인지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 단순히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아닌 원인이나 과학적 기제에 대해 미디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인이 경험하는 성격적 변화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이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성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노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노화로 인해 특정 성격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퇴행하는 등 성격적 변화 역시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퇴행의 결과라고 본다(e.g., Wright, Feczko, Dickerson, & Williams, 2007). 따라서 미디어가 노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표면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공감, 공감이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및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정책 태도에는 태도와 공감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으며, 고령친화정책 지지의도에는 공감만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공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적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다른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얻는다는 기존의 주장과 상통한다(정수영, 2015).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다른 매커니즘으로 발현이 된 것은 물론 이후의 노인 집단을 위한 정책에 대한 태도와 수용 의도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 즉,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좌절에 노출된 응답자가 아닌 노인이지만 긍정적 태도로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의 모습에 노출된 응답자들이 고령친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노인에 대한 공감의 증가로 노인이 자신과 다르지 않고 유사하며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민은 고령친화적 정책에 대한 태도나 지지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기부 캠페인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은 대상의 문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메커니즘 중 하나로 감정적 몰입이나 연민, 동정심의 증가를 들었다(Loewenstein & Small, 2007; Small & Verrochi, 2009). 그러나 연민은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이기 때문에(정수영, 2015),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 순간적으로 기부나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e.g., Bagozzi & Moore, 1994; Lee & Murnighan, 2001), 장기적 관점에서 연민을 불러일으킨 대상은 심리적 불편감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동정심 자체는 이타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연민을 자극한 콘텐츠가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는 오히려 그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최정현 & 김지호, 2020).

고정관념 구성모델(Cuddy et al, 2005; Fiske et al., 2002)에서도 노인에 대한 연민은 온정주의적 태도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관련 학자들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노인을 동등한 지위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사회적 보살핌이나 부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노인 개인적으로도 무력감이나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지원에 대해 이를 노인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혜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를 타 세대가 안고 가야 하는 부당한 부담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측면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해 단순히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고령친화정책은 노인이라는 수혜집단이 존재하는 일종의 사회적 재분배 정책이기 때문에(Lowi, 1964), 복잡한 사회적, 구조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원숙연, 2011). 따라서 노인이 경험하는 일상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적 실상에 대한 기사의 빈도를 단순히 높이는 것만으로는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노인에 대한 태도의 경우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실제로 관련 정책을 지지하고 협조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노인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고령친화정책이 추

구하는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관련 정책에 협조하거나 지지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데에는 미비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노인을 자신과 동등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보고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는 다른 상대에게 공감하고 그를 위한 이타적 동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 혹은 그가 처한 상황의 당위성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서사와 정보가 필요하다(정수영, 2015).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고령친화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의 현주소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기사보다는 노인과 노인이 처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다루고, 노인에 대해 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 노인상을 그려내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2) 한계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뉴스 기사의 논조와 기사에서 묘사하는 노인의 지배적인 속성을 조작하여 가상의 뉴스 기사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비록 뉴스 자극물이 일련의 사전 조사 과정을 통해 선정 및 보완되었으나 기사에서 다룬 노인의 특성 자체가 노인의 성격, 능력, 외모적 특성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 육하는 성격, 그리고 노화로 인해 늙어가는 외모 등 능력, 성격, 외모의 일부를 반영한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그리고 응답자에 따라서는 기사의 내용 자체에 따라 그 논조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기부하는 노인에 대한 기사보다 육하는 성격을 가진 노인에 대한 기사에 응답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의 외모, 능력, 성격을 반영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 전달되었을 때, 혹은 각 특성이 복합적으로 한 기사에 등장하였을 때 응답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뉴스 기사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사의 논조나 기사 속 노인의 특성의 효과만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뉴스 기사 자체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에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으나 실제로 노인에 대한 온라인 뉴스에 노출되는 수용자

의 생각과 태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뉴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사와 수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고, 다른 수용자의 의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인에 관한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을 분석한 신정아와 최윤희 (2020)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댓글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뉴스의 특성상 수용자가 노인 이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만 노인 관련 기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에 대한 온라인 뉴스 기사는 어느 정도 관련도가 있는 수용자들에게 주로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뉴스 기사 자체의 내용 외에 미디어 환경적 요인 혹은 이용자 동기적 요인이 노인에 대한 기사의 내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안한 가설과 연구문제들을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쳐, 연구 모형에서 추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활용하여 언론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좀더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경아·이정교 (2018). 광고에 묘사된 시니어 모델의 사회적 이미지와 광고 소구전략 변화에 대한 내용분석. *사회과학연구*, 44(1), 79~110.
- 국가인권위원회 (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17&boardid=7603324>
- 김미혜 (2003).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한국노년학*, 23, 13~30.
- 김숙·박주연 (2014). 텔레비전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연구. *사회과학연구*, 30(2), 281~300.
- 김왕배 (2010).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 33(2), 195~224.
- 김욱 (2011).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31(3), 505~526.
- 김진경·김택중 (2016). 사회행동과학연구 (SBR) 의 연구자-연구대상자 관계에서 도덕 판단 원리로서 '공감'의 의의: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17(2), 1~15.
- 김효정 (2017년, 1월). 틈딱, 연령차별주의를 말하다.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40100006>
- 박재근·장현주 (2012). 사회보장정책 수용성의 영향요인: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미래세대의 태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317~344.
- 박하연·성영신·김지연 (2013). 기부 설득에서 수혜자 특성과 메시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4(1), 24~44.
- 소현진 (2014). 소비자 공감반응 척도 개발: 이야기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133~142.
- 송유진 (2012). 외모지향의 연령파괴: 중·노년 여성들의 외모 가꾸기. *한국사회*, 13(2), 83~111.
- 신경아·최윤희 (2020). 혐로 (嫌老) 사회: 뉴스 댓글에 나타난 노인인식과 공공 PR 의 과제. *광고학연구*, 31(6), 93~128.
- 안순태·오현정·정순돌 (2017).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37(2), 309~328.
- 안효미·남기범 (2019). 자선에서 연대로, 동정에서 공감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의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2), 141~159.

- 양정남·최은정·김화선 (2020). 대학생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공감능력을 매개변수로 노인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 59~71.
- 양정혜 (2011). TV광고가 재현하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커뮤니케이션이론*, 7(1), 72~106.
- 오세숙·김종순·신규리 (2012). 노인여가관련 신문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7(2), 25~37.
- 오현정·신경아 (2019). 한국 언론은 ‘노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2010년 이후의 노인 관련 언론 보도 특성 분석. *홍보학연구*, 23(4), 40~68.
- 원숙연 (2011). 인종적 소수자 정책에 대한 수용성의 영향요인: 적극적 조치와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4), 327~352.
- 이영주·박가인·임명옥 (2015). 프레이밍의 ‘정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노인문제 프레이밍이 세대차이, 노인부담 인식, 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4), 271~306.
- 이재신·김지은·최문훈 (2011). 보도사진 속 감정과 댓글이 공감을 통해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9(1), 135~170.
- 이지은·이재완 (2015).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OUM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359~390.
- 이호배·정주훈 (1999). 심각성 소구가 태도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 공감 및 감성강도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0(4), 35~57.
- 지은정 (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정현·김지호 (2020). 기부광고에서 피부전도수준 (SCL) 과 광고시청시간이 동정심과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1(3), 501~529.
- 통계청 (2019).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7226](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7226)
- Bagozzi, R. P., & Moore, D. J. (1994).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Emotions and empathy guide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58(1), 56~70.
- Cuddy, A. J., Fiske, S. T., Kwan, V. S., Glick, P., Demoulin, S., Leyens, J. P., ... & Htun, T. T. (2009). Stereotype content model across cultures: Towards universal similarities and some differenc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1), 1~33.
- Cuddy, A. J., Norton, M. I., & Fiske, S. T. (2005). This old stereotype: The

- pervasiveness and persistence of the elderly stereotype.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67~285.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Critical Issues in the Study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ke, S. T., Cuddy, A. J.,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cogni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2), 77~83.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902.
- Goffman, E. (1984).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Harmondsworth: Penguin.
- Gong, L. (2007). Is happy better than sad even if they are both non-adaptive?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ons of talking-head interface ag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5(3), 183~191.
- Hasenfeld, Y., & Rafferty, J.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1027~1047.
- Iyer, A., Leach, C. W., & Crosby, F. J. (2003). White guilt and racial compensation: The benefits and limits of self-focu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 117~129.
- Jones, E., Farina, A., Hastorf, A., Marbus, H., Mitler, D., Scott, B., & French, R. (1984). *Social stigma: The psychology of marked relationships*. New York: Freeman.
- Lee, J. A., & Murnighan, J. K. (2001). The empathy prospect model and the choice to help.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4), 816~839.
- Loewenstein, G., & Small, D. A. (2007). The scarecrow and the tin man: The vicissitudes of human sympathy and car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1(2), 112~126.
- Myrick, J. G., & Oliver, M. B. (2015). Laughing and crying: Mixed emotions, compassion, and the effectiveness of a YouTube PSA about skin cancer.

*Health Communication*, 30(8), 820~829.

- Neumann, R., & Strack, F. (2000). "Mood contagion": The automatic transfer of mood between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211~223.
- North, M. S., & Fiske, S. T. (2015). Modern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in the aging world: A cross-cultural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1(5), 993~1021.
- Nussbaum, M. C. (2003).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yor, J. B., Reeder, G. D., & Landau, S. (1999).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of HIV-related stigma: A two-factor theor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7), 1193~1211.
- Pryor, J. B., Reeder, G. D., Yeadon, C., & Hesson-McInnis, M. (2004). A dual-process model of reactions to perceived stig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4), 436~452.
- Segal, E. A., Wagaman, M., & Gerdes, K. E. (2012). Developing the social empathy index: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dvances in Social Work*, 13(3), 541~560.
- Small, D. A., & Verrochi, N. M. (2009). The face of need: Facial emotion expression on charity advertisemen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6(6), 777~787.
- Stewart, J. (1995). *Bridges not walls: A book abou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ew York: McGraw-Hill.
- Telle, N. T., & Pfister, H. R. (2012). Not only the miserable receive help: Empathy promotes prosocial behaviour toward the happy. *Current Psychology*, 31(4), 393~413.
- Verkuyten, M. (2004). Emotional reactions to and support for immigrant policies: Attributed responsibilities to categories of asylum seekers. *Social Justice Research*, 17(3), 293~314.
- Weiner, B. (1993). On sin versus sickness: A theory of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social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48(9), 957~965.
- Wright, C. I., Feczko, E., Dickerson, B., & Williams, D. (2007). Neuroanatomical

correlates of personality in the elderly. *Neuroimage*, 35(1), 263~272.

Zillmann, D. (1991). Empathy: Affect from bearing witness to the emotions of others. In J. Bryant & D. Zillmann (Eds.), *Communication, Responding to the screen: Reception and reaction processes* (pp. 135~167).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30일

논문심사일: 2021년 06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07월 07일

## Abstract

# The Effect of Stereotype Content and Valence in a News Story about Older Adults on Attitude and Affective Response toward Elderly, and Attitude and Support Intention toward Senior-Friendly Policies\*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Hyun Jung Oh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 Strategic Communication, CHA University

Junghwan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 Strategic Communication, CHA University

Although South Korea is one of the fastest aging countries, social status of Korean older adults has been consistently worsening. Focusing on the role of news media, the present study examines if the valence and the stereotype content of news stories about older adults influence young people's attitudes and affective responses (i.e., compassion and empathy) toward older adults. This study also tests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of older adults' characteristics. A 2 (valence: positive vs. negative) by 3 (content: personality, competence, and appearance) factorial design was employed. Perceived controllability was treated as a within-group variable. The result of an online survey (N = 600) revealed the main effect of news valence,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valence and the stereotype content in the news. The interaction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news valence was significant only for predicting compassion and empathy. Attitude toward senior-friendly policies was predicted by attitude and empathy, but intention to support the policies was predicted only by empathy toward older adult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to journalists and policy makers 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romoting social empathy toward older people for smooth implementation of senior-friendly policies and systems.

**KEY WORDS** Older Adult • News Story • Empathy • Compassion • Senior-Friendly Policy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8021538).

\*\* Corresponding Author, Jhkim@Cha.Ac.Kr